



### 아카데미 기획전

5월9일까지 CGV 광주터미널

- '노매드랜드' #1
-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 #2
- '쿠오바디스, 아이다'
- '더 파더' #3
- '미나리: 피쳐렛' #4
- '쏘울'
- '테넷'
- '프리미싱 영 우먼'
- '소년시절의 너'
- '미드나이트 스카이'
- '뱅크'

# 오스카 후보 오른 11개 작품 만난다

지난달 개봉한 영화 '미나리'가 아카데미상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화제가 되고, 윤여정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여부가 기대를 모으면서 경쟁작 등 다른 주요 후보작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25일(현지시간) 열릴 아카데미 시상식에 앞서 화제의 후보작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CGV는 오는 5월 9일까지 광주터미널점에서 제 93회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 오른 11개 작품을 상영하는 '2021 아카데미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노매드랜드'와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 '쿠오바디스, 아이다', '더 파더' 등 4편이 국내 관객과 최초로 만나며 '미나리'는 배우 인터뷰 등 메이킹 영상이 포함된 '미나리: 피쳐렛' 버전으로 스크린에 오를 예정이다. 이밖에 '쏘울',

'테넷', '프리미싱 영 우먼', '소년시절의 너', '미드나이트 스카이', '뱅크' 등도 다시 한번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지난 3일 개봉해 관객과 만난 '노매드랜드'는 '미나리'의 강력한 경쟁작으로 꼽히는 화제작이다. '미나리'와 '노매드랜드'는 나란히 6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 메인 부문인 작품상과 감독상에서 정면 대결한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길 위의 사람들인 노마드(Nomad-유목민)의 삶을 추적한 이 작품은 제78회 골드 글로브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했다.

7일 개봉하는 '더 파더'는 치매를 앓는 노인의 시점으로 바라본 이야기이다. 안소니 홉킨스가 주연해 남우주연상을 노리고, 딸 역을 연기한 올리비아 콜맨은 윤여정과 함께 여우조연상을 겨냥한다.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는 작품상, 남우조연상, 촬영상, 음악상, 각본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오른 작품으로 22일 개봉한다. 1960년대 후반 일리노이를 배경으로 인종 차별을 반대하는 블랙팬서당 의장인 프레드 험튼의 일대기를 그린 실화다. '겟아웃'의 주인공으로 익숙한 다니엘 칼루야(프레드 험튼 역)가 주연을 맡아 열연한다.

국제장편영화상 후보에 오른 '쿠오바디스, 아이다'는 5월 개봉 예정이다. 1955년 세르비아군에 쫓기던 보스니아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로,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월드시네마 섹션에 초청됐다.

87만 관객을 돌파하며 극장가에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는 '미나리'는 이번 기획전에서 13분 분량의 메이킹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피쳐렛 버전으로 상영된다. 감독과 배우들의 인터뷰를 통해 영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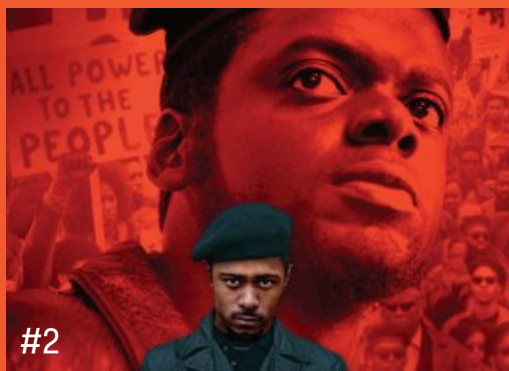
이밖에 예기치 못한 사고로 영혼이 된 조와 지구에 가고 싶지 않은 영혼 22가 함께 떠나는 특별한 모험을 그린 '쏘울', 제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 미래의 공격에 맞서 현재 진행 중인 과거를 바꾸는 이야기 '테넷' 등은 재개봉한다. 또, 성폭행 사건을 다룬 범죄 스릴러 '프리미싱 영 우먼', 운명처럼 만난 청춘들의 로맨스 '소년시절의 너', 가까운 미래 인류 최후의 순간을 그린 '미드나이트 스카이', 1930년대 할리우드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뱅크'도 다시 스크린에 오른다.

'2021 아카데미 작품상 맞추기', '미나리 수상 부문 갯수 맞추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추첨을 통해 CJ ONE 포인트를 증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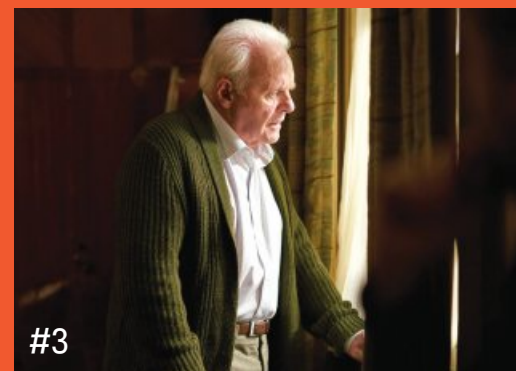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1



#2



#3



#4

## '오월바람'에 나빌레라

광주시립발레단, 9~10일 문예회관 소극장

지난해 5·18 4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발레 작품 '오월바람(사진)'이 올해도 관객과 만난다.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최태지) 제128회 정기공연 '오월바람'이 9일 오후 7시30분, 10일 오후 2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시립발레단은 지난해 초연으로 관객들의 호평을 받은 '오월바람'을 대표 레퍼토리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해의 다양한 평가를 반영, 완성도를 한층 더 높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오월바람'은 80년 오월, 외부에서 불어오는 억압의 에너지를 뜻하는 바람(wind)과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고 싶었던 광주 시민의 바람(wish)을 다의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80년 5월 당시 조선대 무용과 학생들을 주인공으로 계엄군에 맞서 삶과

죽음을 오가는 항거의 과정을 담았다.

1980년 5월, 시민행렬에 뛰어든 주인공 촉망받는 무용과 학생 혜연을 중심으로 혜연을 지키기 위해 계엄군에 대항하는 민우, 반대세력인 충환과 향미 등 입체감 있는 캐릭터들이 흥미로운 전개로 이끈다.

최태지 예술감독이 총연출을 맡았고, 안무 문병남, 각색 이재승, 작곡 나인실 등이 참여했다.

주인공 혜연 역은 강은혜·박경애 단원이 연기하며, 민우 역에는 보그단 플로피뉴·우건희 단원이 출연한다.

R석 1만5000원, S석 1만원, A석 5000원. 문의 062-522-8716.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장흥문화원, 조선후기 학자 김희조 '방호선생문집' 출간

장흥문화원(원장 고영천)에서는 조선후기 영조 때 학자 김희조의 '방호선생문집(放湖先生文集)'(학민문화사)을 문림의향 장흥 고전국역총서 제5집으로 발간했다.

'방호집'은 김희조(1680-1752)의 시문과 사상을 모은 시문집으로, 김희조가 영조에게 사회개선책으로 제안한 만언소가 담겨 있다. 또한 장흥을 중심으로 강진과 화순 등 전라도 서남지역 사정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방호(放湖) 김희조는 본관은 영광, 자는 경선(慶先)이다. 부산면 내안리 흥룡동 출신으로 김순(1654-1709)의 아들이다. 1713년(숙종 39) 생원시에 합격했으며 성균관에 있을 때 1728년 무신란이 일어나 모든 유생들이 도피하자 뜻을 같이 하는 5명의 유생(정봉집, 조홍업, 조덕희, 유용, 박순우)과 직임을 나누어 성묘를 수호했다. 이로 인해 여섯 선비는 충신이라 찬사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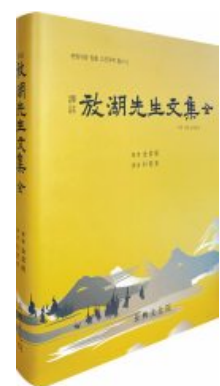
1728년 무신란 이후 사회모순을 타개하려고 영조가 구원교를 내리자 김희조는 응지상소를 올려 인심을 모으고, 인재를 거두며, 군정을 잘 다스리는 것을 전한다. 특히 김희조는 시작에도 뛰어났는데,

칠언율시 가운데 9개의 조목별로 사회 폐단을 읊은 시는 유명하다.

'방호집'은 2권 2책으로 1829년 후손인 김재규, 김중진 등이 주도해 1832년쯤 간행했으며 김덕현, 정재면, 김삼학의 서문과 정익수의 발문이 있다. 1권에는 오언절구(28편), 오언율시(23편), 칠언절구(71편), 칠언율시(136편), 육언절구(3편), 오언장편(1편), 고사(5편)가 있다. 2권에는 소(1편), 서(8편), 제문(2편), 그리고 끝에 영조 무신란 때의 성균관 수관사적(3)이 첨부돼 있다.

김희조는 만년에 향리인 장흥으로 돌아와 장흥과 강진, 능주, 화순 등 산수 사이에서 시를 읊으며 강학과 교유를 했다. 1734년에는 동양계 서문을 짓고 보림사 대적광전이나 탑산사 중수 서문을 쓰는 등 향촌 활동을 펼쳤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빛고을 렉처콘서트' 8일 변혁 감독 인문학 강좌

광주문화재단 10월까지 진행

광주문화재단 '2021 빛고을 렉처콘서트'가 8일 본격 시작으로 10월까지 매달 둘째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렉처콘서트'는 공연(Concert)과 예술강좌(Lecture)가 결합된 프로그램으로, 일방향 강좌가 아닌 공연, 토론을 결합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 입체적이고, 흥미로운 구성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영화, 국악, 연극, 철학, 무용 등 다

양한 장르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돼 다양한 분야를 들을 수 있다.

첫 번째 렉처 콘서트는 8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변혁(사진) 영화감독을 초청해 인문학 강좌 '우리는 왜 드라마를 보는가?'가 진행된다.

변혁 영화감독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프랑수아 파리1대학 출신 미학박사로 영화 '인터뷰', '주홍글씨', '상류사회' 등 작품을 각본·감독했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날 콘서트는 '우리는 왜 드라마를 보는가?'라는 예술강좌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또한 '드라마라는 '허구'에 관심을 갖는 이유', '이야기, 스토리텔링의 이해', '트랜스미디어 생태계의 프로슈머 등 영화나 드라마를 이해하는 관점' 등도 이야기될 예정이다.

'렉처콘서트'는 선착순 50명 무료 관람이며 사전 전화신청해야 한다. 문의 062-670-792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문학 5단체 '미안마 군부 시민 학살 즉각 중단하라'

한국작가회의 등 성명서 발표

한국작가회의를 비롯한 문학 5단체가 미안마 군부의 시민에 대한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학 5단체는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살자들에게 대한 심판에는 국경과 시간의 시효가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미안마 군부의 학살 만행에 미온적인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은 반성하고 제재와 규탄에 동참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작가회의 외에 국제펜한국

본부, 한국문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인협회가 동참했다.

이들은 한국어와 영어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제사회는 즉각 이 사태에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자국의 이익이 아닌 보편적인 인류애와, 생명옹호의 바탕 위에서 미안마 군부를 제재하고, 민간인양 보장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정부는 후속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라"고 덧붙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